

별들이 반짝이며 자유롭게 떠다니는 모습을 통해 신비롭고 몰입감 있는 우주의 분위기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. 각각의 별이 서로 가까이 있을 때 선으로 연결되는 효과를 통해 별자리의 연결선을 연상시키며, 단순히 흩어진 별들보다 더 흥미롭고 복잡한 시각적 구성을 제공하려 했습니다. 마우스를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새로운 별이 생성되고 흩어지는 상호작용이 있어, 별을 더해가는 느낌을 주고자 했습니다.